

제28호(2012. 9. 12)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

이 병 훈 윤 영 석

1. 농가경제의 시계열 분석	3
2. 2011년 농가 유형별 소득구조 분석	11
3. 시사점과 정책 과제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02-3299-4221 jhkim@krei.re.kr
내용 문의: 이병훈 부연구위원 02-3299-4242 bhlee@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WTO 체제 하에서 농업투입재 가격이 농산물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농가교역 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패리티 지수는 1996년의 131을 정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어 2011년에는 94%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경영수지(농업조수입/경영비)는 1995년의 2.89에서 2011년에는 1.49로 절반 수준이 되었고, 농가경제수지(농가소득/가계비)도 1995년(1.47) 이후 계속 악화되어 2011년에 1.08 수준을 나타냄.

품목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작목(채소, 과일, 축산 일부 등)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과잉생산을 초래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을 하락시키고 투입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채소 농가의 경영수지는 2008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됨.

농가소득 감소에 따라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1995년 95.7%에서 2011년에 59.1%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농가 간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7년에 0.402에서 2011년에는 0.424로 증가하였음. 반면, 같은 기간 동안에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295에서 0.288로 감소하여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11년도 농가경제통계 원자료에서 농가를 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 기준으로 유형 구분하여 소득 구조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의존도가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농일수록 농업소득과 공적보조금이 적고, 중견 농가일수록 농외소득이 많은 경향이 나타남. 또한 농가의 장기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고령농과 영세농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임.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가의 노력과 아울러 정부 정책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향후 전문화·전업화된 농가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농들은 관행적 농업을 수행할 것이므로 농업소득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고령영세농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소득보조가 필요함. 이러한 소득 정책은 일률적이 아니라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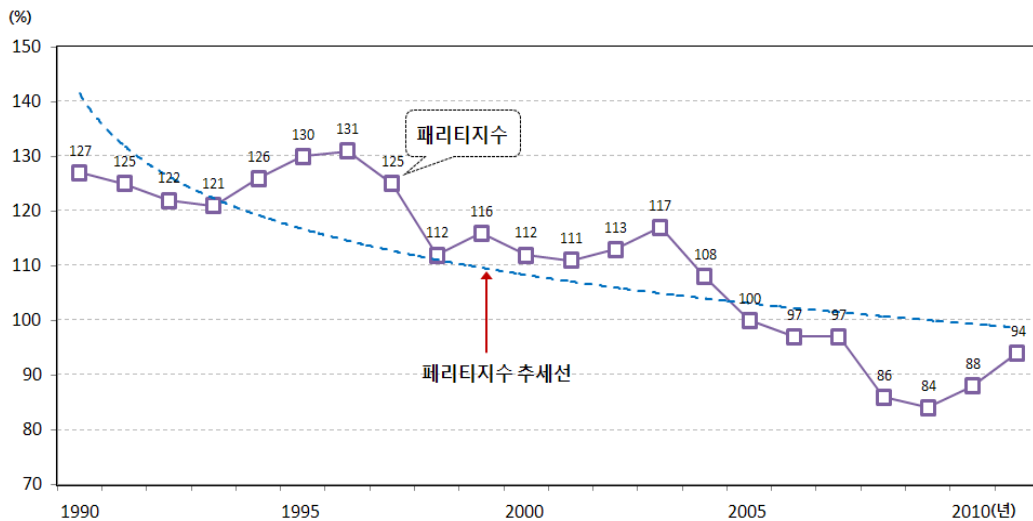
1. 농가경제의 시계열 분석

1.1. 농가교역조건과 농업경영수지의 변화

□ 1996년 이후 농가교역조건은 계속 악화 추세

- WTO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투융자 확대에 힘입어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량의 증가세가 가속되었으나, 농업 투입재 가격이 농산물 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농가교역조건¹⁾이 급속히 악화
 - 패리티(농가교역조건) 지수는 1996년의 131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94% 수준을 나타냄
 - 최근의 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농가구입가격 지수 상승 폭이 농가판매가격 지수 상승 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 1. 패리티(농가교역조건) 지수 추이(1990~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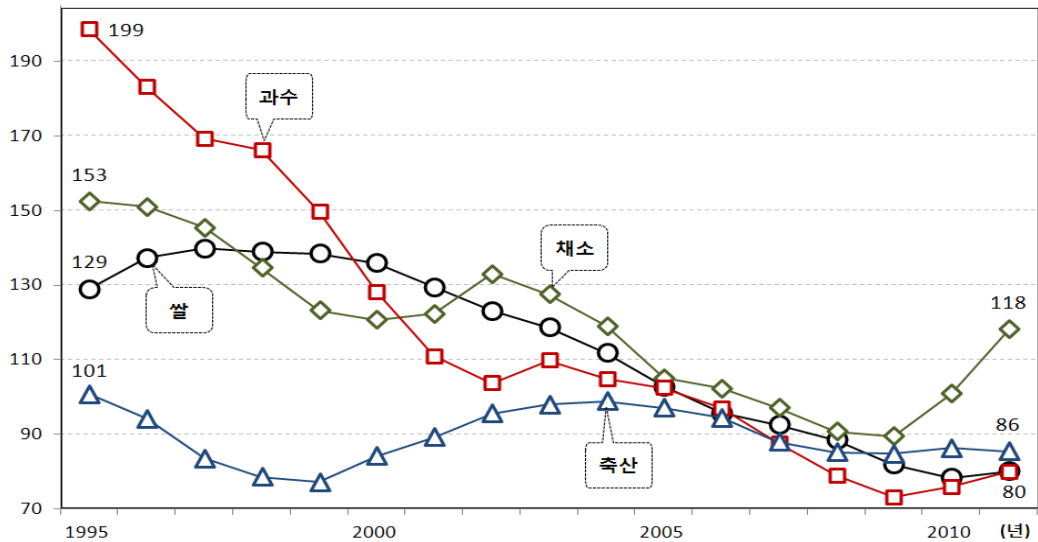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농가경제통계조사」 각연도.

- 1) 패리티(농가교역조건) 지수: 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 상승 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을 따지기 위한 지표
- 100 이상 : 농산물가격상승률 > 농가구입물품가격상승률 ⇒ 채산성 호전
 - 100 이하 : 농산물가격상승률 < 농가구입물품가격상승률 ⇒ 채산성 악화

- 주요 농산물의 부류별 패리티 지수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00 이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채소 패리티 지수는 농가판매가격 지수의 상승 폭이 확대됨으로써 다른 부류에 비해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쌀과 과수 부문의 패리티 지수는 1996년 이후 빠르게 하향 추세
 - 채소 부문의 패리티 지수는 하락세에서 최근에 급등하여 채산성이 개선되었으나, 향후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
 - 축산 부문의 패리티 지수는 2000년대 들어 호전되면서 2004년에 100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최근에 판매가격 하락으로 하향세

그림 2. 주요 부류별 패리티 지수의 추이(1995~2011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농가경제통계조사」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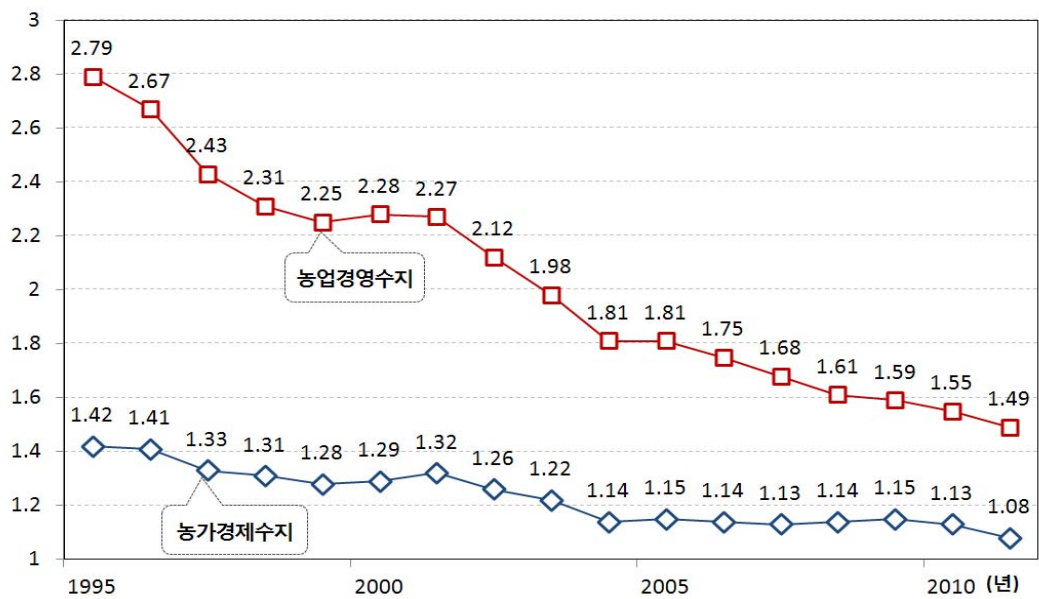
□ 농가경제수지와 농업경영수지의 악화 심화

- 농업의 교역조건 악화로 농업소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계비는 계속 증가하여 농가경제수지²⁾가 빠르게 악화되는 추세
 - 농가경제수지는 1995년(1.47)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1년에는 1.08까지 하락하여 연평균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농가경제수지는 1년간 농가의 경제활동 결과에 의한 농가소득 대비 가계비의 비율로서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됨.

- 농업경영수지는 1995년에 2.89이었으나 연평균 4.1%씩 감소하여 2011년에는 1.49까지 농가경제수지보다 더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이는 농업조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비가 더 많이 증가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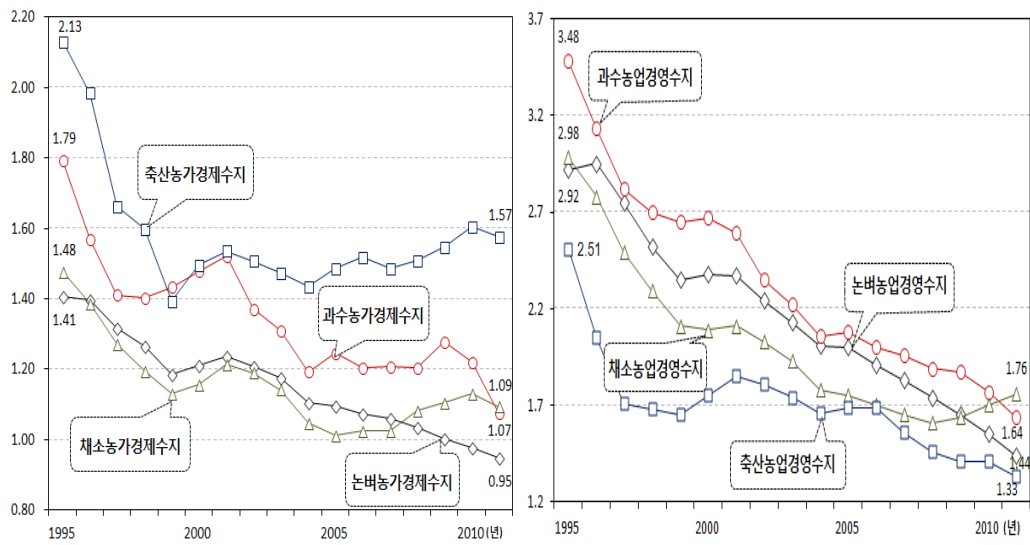
그림 3. 농가경제수지 및 농업경영수지 변화 추이(1995~2011년)



주: 농가경제수지=농가소득/가계비, 농업경영수지=농업조수입/농업경영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농가경제통계조사」 각연도.

- 농가경제수지는 경영형태별 분석에서도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농업생산이 자본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작목인 채소, 과일 부문으로의 자원이 집중되어 과잉생산을 초래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을 하락시키고 투입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이 감소한 것에 기인
 - 논벼 농가의 경제수지는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보이며, 작년에는 0.96까지 급감함에 따라 앞으로도 정체 내지 감소가 예상
 - 채소와 과수 농가의 경제수지는 하락세에서 최근 소폭 반등 내지 회복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 여부는 불투명
 - 반면, 축산 농가의 경제수지는 축산소득의 증가세가 가계비보다 빠르게 확대되어 흑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

그림 4. 경영형태별 농가경제수지 및 농업경영수지 변화 추이(1995~2011년)



- 농업경영수지도 모든 경영 형태에서 감소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농업조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한 데 반해 농업경영비는 급속히 증가한 것에 기인
 - 반면, 채소 농가의 농업경영수지는 2008년에 반등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1.76까지 급등하는 등 앞으로도 상승세 예상

표 1. 최근 5년간 경영형태별 실질 농가경제수지 변화율(2011/200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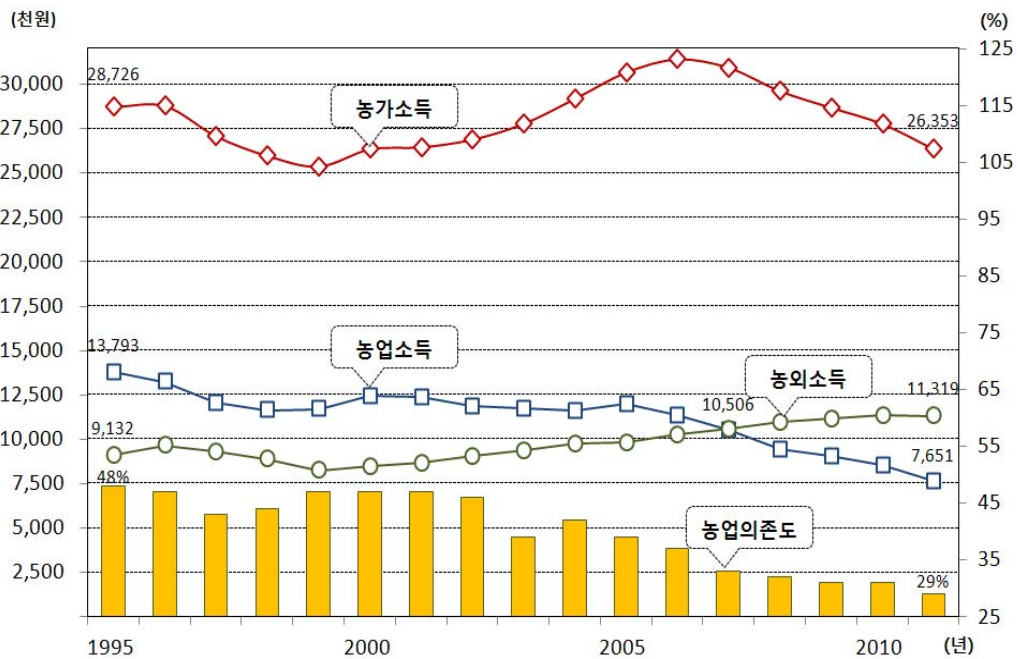
구분	농가소득	가계지출	농가수지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수지	
증감률 (2011/ 2005)	논벼	-13.0	-2.2	-11.2	7.4	47.4	-26.9
	과수	-10.1	3.0	-13.0	1.9	30.3	-21.5
	채소	0.3	-6.6	6.9	1.3	1.1	0.6
	축산	8.8	3.4	4.7	75.4	127.5	-23.1
	전체	-1.2	4.7	-5.3	-0.1	20.6	-17.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농가경제통계조사」 각연도.

□ 농업소득 감소는 농가소득 감소세로 이어져

- 농업교역조건이 악화되어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이 감소세로 이어짐
 - 농업의존도(농업소득/농가소득)는 1995년에 4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29%까지 하락
 - 다행히 농외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가소득의 감소세를 완화시키고 있음

그림 5. 실질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업의존도 변화 추이(1995~2011년)



주: 소득원별 통계치는 GDP 디플레이터(2005년 기준)로 실질화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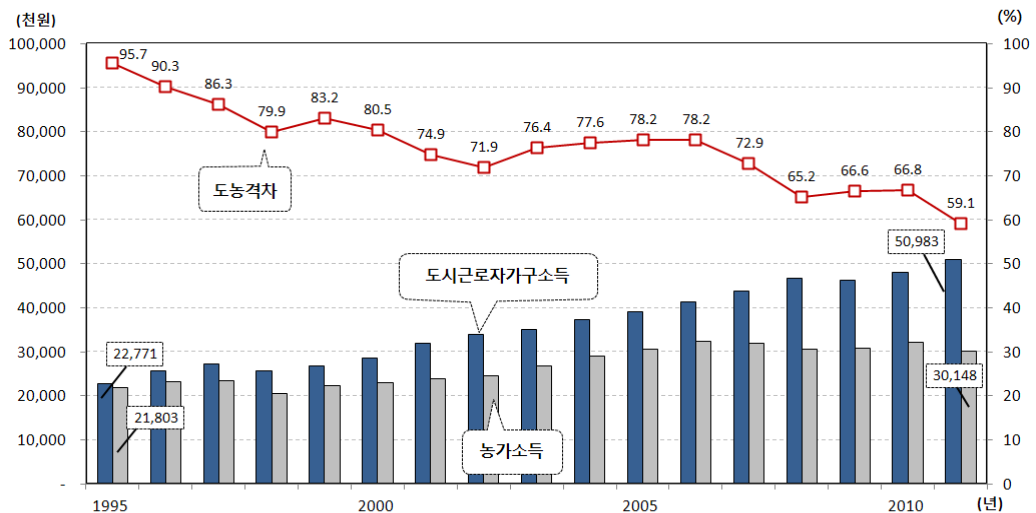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조사」 각연도.

1.2.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비교

□ 도농 간 소득격차는 계속 확대 경향

- 농가의 교역조건이 열악해지면서 농가경제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1995년에 95.7%에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 59.1%까지 하락
 - 그간의 추세로 판단할 때 향후에도 농가경제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적으므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그림 6.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변화 추이(1995~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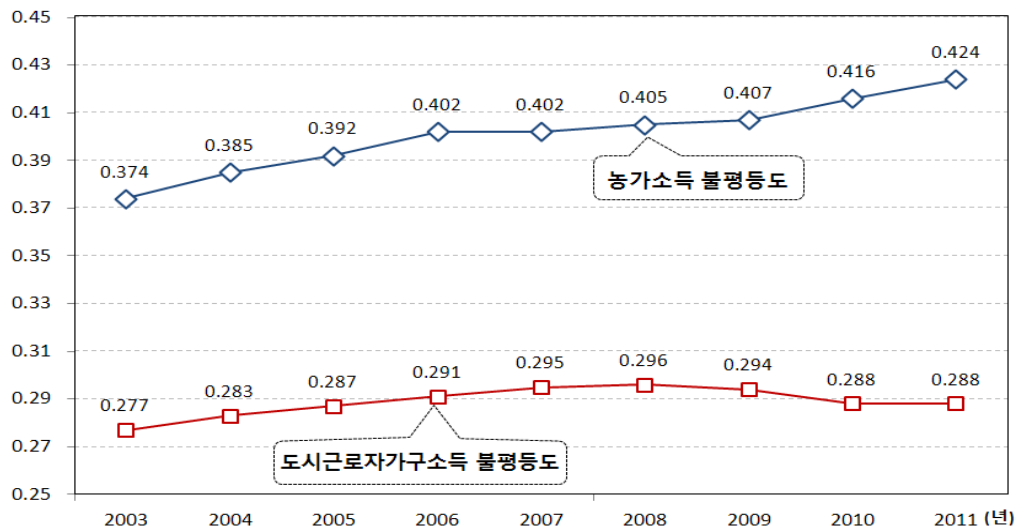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농가경제통계조사」 각연도.

□ 농가경제의 불평등도는 '위험 수위', 반면에 도시가구의 소득분배는 개선

-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가경제수지 및 농업경영수지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농가 간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추세
 - 농가 간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8년에 0.405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1년에는 0.42로 증가
 - 반면, 도시근로자가구 간의 지니계수는 2008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1년에는 0.288로서 소득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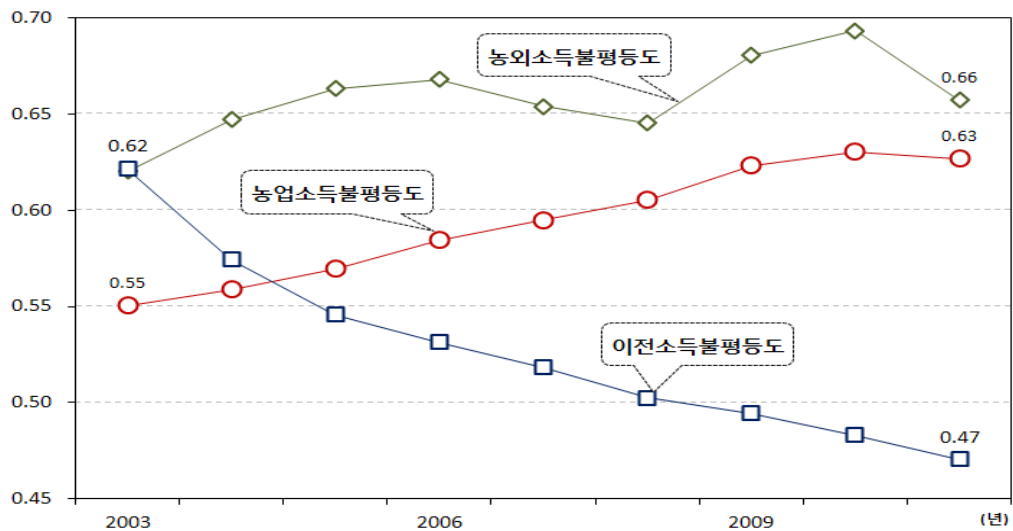
그림 7. 농가소득 및 도시가계근로자소득의 불평등도 변화 추이(2003~2011년)



주: 통계청, 「가계동향」, 「농가경제통계조사」 각연도 원자료 분석.

- 농가소득원별 지니계수를 분석해 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경우도 2003년 각각 0.55, 0.62에서 2011년에는 0.63, 0.66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가소득원별로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

그림 8. 농가소득원의 불평등도 변화 추이(2003~2011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조사」 각연도 원자료 분석.

□ 최근의 소득불평등 심화로 농가경제의 불안정 상태 지속

- 농업소득의 불평등도 추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농가소득 불평등의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농업소득의 지니계수는 2001~2011년간 0.490에서 0.627로 약 27.7% 증가하는 등 소득 불평등도의 심화를 견인
 - 농외소득의 지니계수는 0.563에서 0.657로 약 16.8% 증가하였으나, 이전수입의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농가부채의 불평등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체 농가경제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지난 10년간 농가부채 불평등도 변화율(10.0%)은 농가소득(22.5%)보다 덜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4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부채부담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표 2. 최근 10년간 농가소득, 소득원, 농가부채의 불평등도의 변화 추이(2001~2011년)

구 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농가부채
2001	0.3461 (100.0)	0.4905 (100.0)	0.5627 (100.0)	0.5632 (100.0)	0.6258 (100.0)
2002	0.363 (105.5)	0.5332 (108.7)	0.5721 (101.7)	0.5663 (100.6)	0.6324 (101.1)
2003	0.3744 (109.1)	0.5506 (112.3)	0.6203 (110.2)	0.6214 (110.3)	0.6452 (103.1)
2004	0.3847 (109.9)	0.5495 (112.0)	0.6595 (117.2)	0.5556 (98.7)	0.6586 (105.2)
2005	0.3916 (114.4)	0.5753 (117.3)	0.661 (117.5)	0.5451 (96.8)	0.6583 (105.2)
2006	0.4023 (115.1)	0.5831 (118.9)	0.6695 (119.0)	0.5353 (95.0)	0.643 (102.7)
2007	0.4022 (119.2)	0.5953 (121.4)	0.6735 (119.7)	0.5133 (91.1)	0.6784 (108.4)
2008	0.4047 (114.3)	0.6059 (123.5)	0.6185 (109.9)	0.505 (89.7)	0.6503 (103.9)
2009	0.4066 (117.3)	0.6137 (125.1)	0.6432 (114.3)	0.4887 (86.8)	0.667 (106.6)
2010	0.4162 (120.8)	0.6502 (132.6)	0.7791 (138.5)	0.4896 (86.9)	0.6994 (111.8)
2011	0.4239 (122.5)	0.6266 (127.7)	0.6573 (116.8)	0.4702 (83.5)	0.6882 (110.0)
증감율(%) (2001/2011)	22.5%	27.7%	16.8%	-16.5%	1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조사」 각연도 원자료 분석.

2. 2011년 농가 유형별 소득구조 분석

2.1. 분석을 위한 농가 유형화

□ 영농 규모와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

- 통계청의 2011년도 농가경제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영농 규모와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농가 유형별 특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농 규모는 소농(1ha 미만)과 대농(3ha 이상)으로, 경영주 연령은 65세 이상 고령농과 65세 미만 중년농가로 구분함
 - 농가경제통계의 표본 수는 총 2,637개이지만, 유형 구분에서 중간규모 계층을 배제하였으므로 분석 대상은 1,651개임

표 3. 농가경제통계 조사농가의 유형 구분과 특징

65세 이상	I 유형(고령 영세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수 비중 : 31.7%(839호) ▫ 표준영농규모 : 0.5ha ▫ 영농형태 : 1순위 2종겸업(30.2%) 2순위 채소농가(27.2%) ▫ 가구원 수 : 2.3명 ▫ 학력 수준 : 0.21 ▫ 숙련농업 종사자 비중 : 94.6% 	III 유형(고령 대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수 비중 : 2.4%(64호) ▫ 표준영농규모 : 4.39ha ▫ 영농형태 : 1순위 채소농가(32.8%) 2순위 논벼농가(31.3%) ▫ 가구원 수 : 2.5명 ▫ 학력 수준 : 0.19 ▫ 숙련농업 종사자 비중 : 100%
	II 유형(중년 겸업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수 비중 : 18.7%(493호) ▫ 표준영농규모 : 0.51ha ▫ 영농형태 : 1순위 2종겸업(64.3%) 2순위 채소농가(16.4%) ▫ 가구원 수 : 2.9명 ▫ 학력 수준 : 1.22 ▫ 숙련농업 종사자 비중 : 61.7% 	IV 유형(중년 대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수 비중 : 9.7%(255호) ▫ 표준영농규모 : 5.46 ha ▫ 영농형태 : 1순위 논벼농가(31.4%) 2순위 채소농가(22.7%) ▫ 가구원 수 : 3명 ▫ 학력 수준 : 0.9 ▫ 숙련농업 종사자 비중 : 96.9%
	소농(1ha 미만)	대농(3ha 이상)

주: 1) 표준영농규모=경지면적+농업용 고정자산÷35,000원(농지의 수익지가).
2) 학력 수준 1 이상(이하)은 고졸 이상(미만).

- 농가 유형별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I 유형(고령 소농):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영농규모가 1ha 미만. 주요 영농형태는 2종 겸업과 채소농이며, 영농규모는 평균 0.5ha이고 가구원 수는 평균보다 적은 편임
 - II 유형(중견 소농=겸업농): 경영주 연령이 65세 미만이고 영농규모가 1ha 미만. 주요 영농형태는 2종 겸업이며, 영농규모는 평균 0.51ha이고 가구원 수는 평균보다 조금 적은 편임
 - III 유형(고령 대농):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영농규모가 3ha 이상. 주요 영농형태는 채소와 논벼이며, 영농규모는 평균 4.4ha이고 가구원 수는 평균과 비슷한 정도임
 - IV 유형(중견 대농=전업농): 경영주 연령이 65세 미만이고 영농규모가 3ha 이상. 주요 영농형태는 논벼 및 채소이며, 영농규모는 평균 5.46ha이고 가구원 수는 평균보다 많은 편임

2.2. 농가 유형별 소득구조의 특징

□ 농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농가소득이 많은 경향

-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모두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의존도가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가 전체의 평균소득(3,015만원)과 유형별 평균소득을 비교해 보면, IV유형 농가와 III유형 농가는 평균보다 1.6배 정도가 높은 수준이며, II유형 농가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1.2배, 그리고 I유형 농가는 평균보다 낮은 0.6 수준임
- 대농층의 농가소득이 높은 것은 다른 유형보다 영농규모가 크고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대농층 농가의 농업소득 역시 전체 평균 농업소득(875만 원)보다 약 2.78배(IV유형)에서 3.30배(III유형)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외소득과 겸업소득은 영농규모와 상관없이 경영주 연령이 65세 미만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냄

그림 9.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농업소득, 가계비, 농가경제수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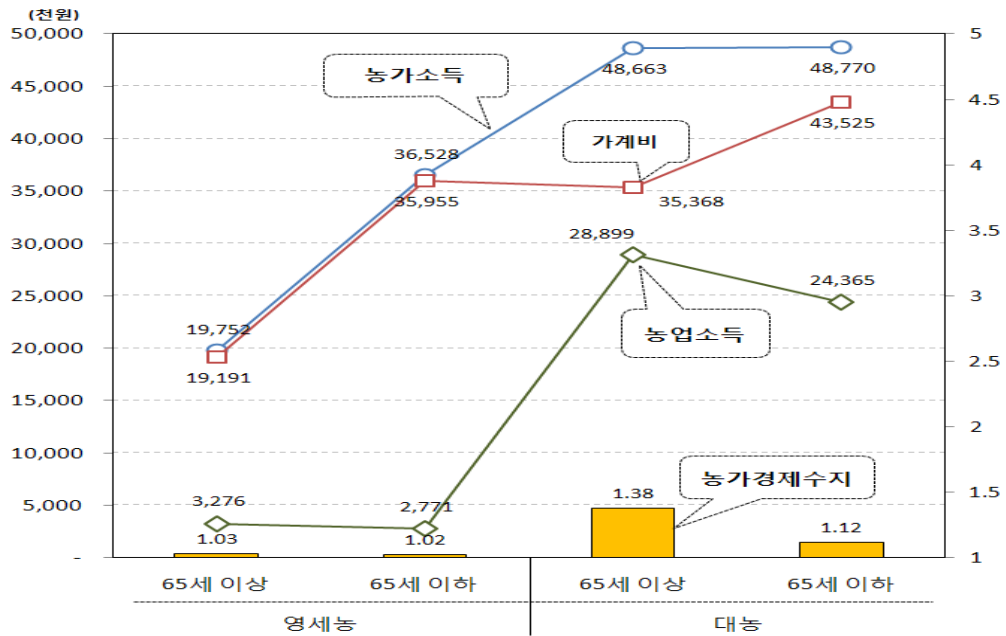


표 4.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원 지표

단위: 천 원,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평균
농가소득	19,752 (65.5)	36,528 (121.2)	48,663 (161.4)	48,770 (161.8)	30,148 (100)
농업소득	3,276 (37.4)	2,771 (31.7)	28,899 (330.2)	24,365 (278.4)	8,753 (100)
농외소득	8,210 (63.4)	26,527 (204.9)	9,463 (73.1)	12,560 (97.0)	12,949 (100)
이전소득	5,946 (109.0)	3,765 (69.0)	7,800 (143.0)	7,343 (134.7)	5,453 (100)
겸업소득	1,572 (43.0)	8,058 (220.6)	2,077 (56.9)	5,790 (158.5)	3,653 (100)
농가경제수지	1.03	1.02	1.38	1.12	1.08
농업경영수지	1.67	1.28	1.61	1.4	1.49
농업의존도	16.6	7.6	59.4	50.0	29.0

자료: 통계청, 「2011 농가경제통계조사」 원자료 분석.

- 가계비는 영세소농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농은 경영주 연령대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부양가족(가구원수)이 많은 65세 미만 IV유형이 가장 큼
 - 농가경제수지는 대농이면서 가계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65세 이상 농가계층인 III유형(1.38)의 흑자 폭이 가장 크고, 다음은 대농이면서 가계비 지출이 많은 IV유형(1.12)이며, I 유형(1.03)과 II유형(1.02)은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농가의 재무 건전성은 고령 농가일수록 양호한 경향

- 농가의 경영안정성 지표를 보면, 자산은 영농규모와 비례하지만 부채는 경영주 연령과 반비례하는 경향
 - 자산은 대농 계층인 IV유형과 III유형 농가가 전체 평균(3억 8,718만원)보다 각각 1.82배, 1.58배 많으며 반면, 소농 계층인 I 유형(0.73배) 및 II유형(0.95배) 농가는 평균 이하 수준
 - 농가의 재무구조 건전성은 고령농가일수록 건전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장기 부채상환능력 지표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65세 이상 경영주 유형인 I 유형(3.3%)과 III유형(5.5%) 중견 농가 65세 미만 농가 유형(9.0~13.2%)보다 양호한 수준

표 5. 농가 유형별 경영안정성 지표

단위: 천 원,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평균
자 산	282,837 (73.1)	367,508 (94.9)	611,026 (157.8)	706,500 (182.5)	387,180 (100)
부 채	9,230 (35.5)	33,118 (127.2)	33,870 (130.1)	93,544 (359.3)	26,035 (100)
부채/자산	3.3	9.0	5.5	13.2	6.7
부채/당좌자산	14.4	38.6	25.0	65.5	30.3

자료: 통계청, 「2011 농가경제통계조사」 원자료 분석.

□ 소농일수록 농업소득과 공적보조금이 적으며, 중견 농가일수록 농외소득이 많은 경향

- 농가 유형의 소득원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공적보조금 등으로 로짓(logit) 분석을 시도함
- I 유형(고령 영세농): 이전소득이 많을수록, 농업소득·농외소득·공적보조금이 적을수록 해당
 - II 유형(중견 겸업농): 농외소득·농가경제잉여가 많을수록, 농업소득·공적보조금이 적을수록 해당
 - III 유형(고령 대농): 농업소득·농가경제잉여가 많을수록 해당
 - IV 유형(중견 대농): 농업소득·농외소득·공적보조금이 많을수록 해당

표 6. 농가유형별 농가소득원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상수항	3.221 (0.286)***	1.442 (0.23)***	-0.661 (0.132)***	-2.175 (0.218)***
농업소득	-0.149 (0.011)***	-0.064 (0.008)***	0.018 (0.005)***	0.084 (0.008)***
농외소득	-0.043 (0.007)***	0.024 (0.006)***	-0.001 (0.003)	0.022 (0.006)***
이전소득	0.061 (0.025)**	-0.019 (0.02)	0.006 (0.012)	-0.011 (0.019)
비경상소득	-0.003 (0.007)	-0.001 (0.005)	0.001 (0.003)	-0.001 (0.005)
농가경제잉여	-0.009 (0.01)	0.019 (0.008)**	0.01 (0.005)**	0.011 (0.008)
공적보조금	-0.042 (0.025)*	-0.043 (0.02)**	0.011 (0.012)	0.042 (0.019)**
σ	0.396 (0.008)***	0.318 (0.007)***	0.183 (0.004)***	0.302 (0.006)***
Log Likelihood	-539.3122	-299.9	-241.899	-884.1625

주 1) N=표본 2,637 농가.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시사점과 정책 과제

□ 최근의 농가소득 문제는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뿐만 아니라 농가 간의 소득 불평등으로 나타남

- 농산물 실질가격의 하락과 농업부가가치 감소에 따라 농업소득이 정체 되는 가운데 도농 간 소득격차(1995년 95.7% → 2011년 59.1%)는 확대 되고, 농가 내부에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농가소득 지니계수: 2007년 0.402 → 2011년 0.424)이 심화되는 추세임
-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가의 노력과 아울러 정부 정책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농가 유형별로 소득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

- 중견 전업농가는 농업소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영농규모 확대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 전업농에게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모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개별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농업의 조직화가 장려되어야 하며, 특히 중규모 논벼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역복합경영 또는 집단경영(예: 들녘별경영체)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소득원 확보도 중요하며, 지역 단위로 특산물 가공을 비롯하여 직거래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함
- 영세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이 갖추어져야 하며, 부족분에 대한 소득보조 등을 강구해야 함

□ 농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함

-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일률적이 아니라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함

- 농가의 발전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확립되어야 함.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책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자격을 부여받는 방식임.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이 저조하여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운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9. 11

발 행 2012. 9. 12

발 행 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351-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